

“산재환자 곁 34년”...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 산재간호대상’ 시상

- ‘간호사의 날’ 맞아 의료현장 헌신 기리는 다채로운 기념행사 개최
- 코로나19 대응부터 산재환자 직업복귀 지원까지 환자 중심 간호 실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365일 24시간 환자의 곁을 지키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행사를 20일 공단 대전병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의료 최일선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 간호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환자 중심 간호 실천과 산재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병원 김시영 간호사가 ‘2026 대한민국 산재간호대상’을 수상했다.

김시영 간호사는 1992년 입사 이후 34년간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긴박한 의료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 간호사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이었던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파견 근무를 자원해 백신접종 전담과 확진자 간호업무를 수행하며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헌신했다.

또한, 산재환자의 조기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다학제 협진 기반의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힘써왔으며, 병동 수간호사로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끄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간호사는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곁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상”이라며, “앞으로도 환자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고된 의료현장에서도 환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는 간호사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공단병원이 환자 중심 재활의 글로벌 표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며, “공단병원은 앞으로도 산재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역사회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 | | | |
|-------|-----------------|-----|-----|--------------------|
| 담당 부서 | 의료사업본부 진료지원부 | 책임자 | 부 장 | 이은진 (052-704-7522) |
| | | 담당자 | 팀 장 | 진유숙 (052-704-7526) |

